

서울 도심 인쇄산업지역 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최동혁**

A Study on Planning Elements of Buildings on Streets of the Printing District in the Central Area of Seoul*

Donghyeog Choi**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의 주요 도심 산업시설인 인쇄산업지역 가로변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심산업시설의 기능적,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요소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중구 인현동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도로와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대한 조사와, 인쇄산업의 분포특성,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 그리고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도로의 총 연장길이는 3,879.17m이며, 총 513동의 건축물에 약 706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연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에 입주한 업체의 약 55%가 인쇄산업시설로 파악되었으며,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른 입지의 특징적인 분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내재된 집단생산구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지역의 인쇄관련업체들의 대부분이 가로와 밀접한 연결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쇄산업의 모든 세부공정에서 공통적으로 가로공간을 실내공간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 공정에 맞게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활용하고 있어 가로공간을 원활한 분업과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된 도심 인쇄산업지역의 계획 요소로는, 첫째, 건축물 외부의 조업공간의 확보를 통한 가로공간과 건축물 내부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며, 둘째, 확보된 건축물 외부의 공간은 원활한 물류의 움직임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와 형태를 가져야 하며, 셋째, 외부 환경으로부터 재료와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종합된 계획요소들은 앞으로 연구대상지역을 포함한 서울 도심의 인쇄산업시설의 자생적 발전과 수복형 도심재생의 기초적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인쇄산업, 가로공간, 분포특성, 건축계획요소

ABSTRACT : This is a study on the planning elements of building on streets of the printing district in the central area of Seoul by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et space and the buildings. The subject of this analysis will be limited to the streets and buildings inside the city blocks in Inhyun-Dong,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city. The total length of the streets is 3,879.17m, and the total number of the buildings for this study is 513, which includes 706 individual business enterprises. First, 55% of individual enterprises is related to the printing industry and a specific order of the group manufacturing system was detected by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locational distribution in this printing industry area. Second, by analysing the connecting system of the streets and the buildings in this area, it was found that most printing related enterprises here demand very close relations between the street spaces and the buildings. Third, most of printing enterprises in this

* 본 연구는 2007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Lecturer, Department of Architecture, Kyungwon University), donghyeog@kyungwon.ac.kr

area have the common perception that the street space is the extended indoor space for production, and furthermore, necessary structures were installed to use the street space as working area. From the analysis, the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this printing industry in this area are 1)close relationship between street space and inside space of the building to secure outdoor space for production activities, 2)appropriate shape and size of outdoor space for distribution system, and 3)adequate facilities to protect materials and printed matter. The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s in this study could be the basic data for the self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of this area.

Key Words : printing industry, street space, characteristic of distribution,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도로와 필지 그리고 건축물로 구성되는 복합체로서 도시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구성요소간의 관계에 의하여 형성된다. 또한 도시환경은 단일 건축물의 형태나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건축물과 가로공간의 관계가 종합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의 발전방향의 제시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인 건축물과 그 용도, 그리고 물리적 특징으로서의 건축요소의 파악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신축이나 갱신 등의 건축활동은 도시환경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건축물의 형태와 사용방식에 대한 연구는 도시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도심재개발의 대부분은 도시 기능의 현대화에 초점을 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도시 상황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대규모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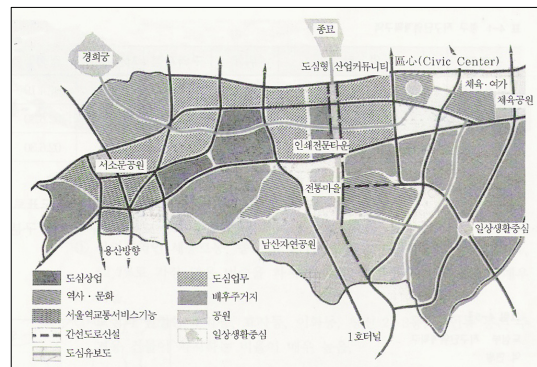
업계획에 의한 전면재개발 위주로 진행되어, 기존의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다양한 도시환경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서울 도심을 대상으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심재개발사업은 가로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고려보다는 토지활용의 증대 및 양적인 팽창 위주로 진행되어 가로공간의 물리적 특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¹⁾ 자생적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규제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적 맥락에 대한 규정과 함께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특히 기존 도시의 컨텍스트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규제보다는 주변 상황과 조화되는 계획기준의 제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²⁾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는 가로체계와 필지,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구성요소의 물리적 형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기존

- 1) 서울시와 종로구는 공동으로 2004년 세운상가4구역 국제지명현상설계를 시행하여 코터 김+무영건축+동우건축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지명현상설계에서 램 쿨하스+삼우설계 팀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이미지와 정체성의 강화를 위해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건축형태로 재해석하여 영구화함으로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기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도시가로의 형태를 존중하고 재해석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존 도시가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형태요소로서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 2) 가로경관의 환경보전과 함께 가로의 경관을 계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도는 도시공간 그 자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의 도시환경이 도로와 필지,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인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사회, 경제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며, 도시의 사회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이 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생산활동의 지리적 분산이 가능해졌음에도, 공간적 연계와 대면접촉을 중요시하는 일부업종은 오히려 도심지역에 집적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외부비용이익을 제공하는 대도시와 그에 따른 대규모 시장에서는 경제활동이 강력하게 응집하면서 집중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외부경제와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기업의 입지에 유리하며, 실제로도 서울시 제조업에서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지가부담과 토지이용제한이나 공장건축규제와 같은 강력한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에서 소규모 영세 업체군이 발견된다.³⁾

〈그림 1〉은 서울의 중심부인 중구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나타낸 그림으로 지역에 따른 특정시설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처럼 도시의 토지이용에 있어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도시 속에 내재된 질서에 의한 것으로, 특정시설에 의한 토지이용에 대한 분석은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함께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앞으로의 도시발전계획 수립의 기반이 된다.⁴⁾ 도심산업시설 중에서 인쇄업은 도시 집중도가 매우 높은 시설로서 중구 인현동2가를 중



자료: 윤용기(2002), p.73.

〈그림 1〉 서울시 중구 토지이용계획

심으로 소규모 인쇄관련산업이 집중 분포한다.⁵⁾ 이 지역 인쇄업의 특성으로는 특화된 가로공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며, 분업과 협업을 통한 생산활동의 결과 이 지역만의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용도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도시의 자생적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도시발전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의 구조적 질서에 기반을 둔 자생적 도심재생을 위해서는 특정 가로공간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건축물의 신축과 갱신을 위한 계획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도시를 구성하는 개별요소인 건축물과 건축계획요소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개별요소의 집합으로서 가로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현이다. 이러한 규제는 가로공간뿐만 아니라 광장 등 공공공간의 환경보존과 더불어 건축물의 규제를 넘어 옥외광고물이나 공작물의 규제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정형(2002), p.29.

3) 김란주(1994), p.1.

4) 최동혁(2005), p.103.

5) 제조업 가운데 대도시 지향적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도심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업종으로는 인쇄, 출판업, 의류제조업, 식품가공업 등이 있으며, 특히 인쇄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그 지역구조와 입지의 특수성이 명확히 추구되는 업종이다. 즉 인쇄업은 높은 수요접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문화활동의 중심지인 도심에 집적이 형성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2001년 전체 제조업 사업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위치를 차지하며, 그 비율도 15.37%에 달한다. 최동혁(2005), pp.77~79.

본 연구는 서울의 주요 도심산업시설인 인쇄산업이 집중된 중구 인현동2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로공간의 현황에 대한 파악과, 가로와 건축물의 물리적 관계 및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집중된 도심산업시설의 기능적,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도시가로공간을 구성하는 가로변 건축물의 용도에 의하여 나타나는 건축계획요소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심산업시설로서의 인쇄산업지역의 도시 구조적 질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자생적 갱신과 수복형 도심 재생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의 고찰에 있어서는 크게 인쇄업의 산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청계천 이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로서 인쇄업에 관한 연구로는 오경숙(1987)과 김란주(1994)의 연구가 대표적이나, 이들의 연구는 인쇄업의 산업적 특성 및 지역적 입지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가로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표 1〉 참조).

본 연구의 대상지인 청계천 이남의 중구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기호(2003), 양승우(2003), 최동혁(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김기호는 도시구조의 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승우는 필지변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⁶⁾(〈표 2〉 참조).

다만 최동혁(2005)의 연구에서 남촌지역의 건축물의 용도와 가로공간의 사용방식과, 1990년 이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가로공

〈표 1〉 인쇄산업관련 연구

저자	년도	연구 내용	연구 성과
오경숙	1987	우리나라 인쇄업의 지역구조와 그 위치변동에 대한 분석	인쇄업은 그 산업의 특성상 대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도심, 혹은 수요자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인쇄단지의 필요성 제시
김란주	1994	서울 중구지역 인쇄업체의 생산방식과 업체의 연계성 분석	서울시 중구지역에 인쇄업이 집중되는 이유는 인쇄업 자체의 특성 이외에도 소규모 업체 간의 효과적인 분업의 결과

〈표 2〉 서울 청계천 이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저자	년도	연구 내용	연구 성과
김기호	2003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에 의한 남촌지역의 도시구조의 변화 모습	일제 강점기의 도시계획의 결과 기존의 동서 연결도로 위주의 도시구조에 남북 연결도로가 등장한다.
양승우	2003	조선후기 및 일제 강점기의 필지구조의 특성 파악과 변화과정에 대한 추적	필지의 구성방식에 따라 소형필지 군집형, 중형필지 군집형, 그리고 가로형 필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최동혁	2005	가로환경의 분석을 통하여 도시 역사환경에 대한 고찰과, 가로환경의 형태적, 기능적 특성에 대한 파악	밀집한 소규모 인쇄관련 시설에 의하여 가로공간이 생산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됨에 따라 연구대상 지역은 산업단지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는 이 지역의 주요한 도시 기능적 특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6) 청계천 이남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남촌이라 지칭하는데, 청계천 이북지역인 북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것은 남촌지역이 일본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도시원형이 많이 사라져버렸고 기타 주요한 문화재로 평가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다는 것이 연구의 주 흐름에서 소외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및 건축물의 갱신에 의한 가로공간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지만, 분석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의 수가 44개동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건축물의 계획특성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정형·김진욱(2005), 김동진·김태연(2007), 최이명·박소현(200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으나,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물리적 요소에 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가로공간의 상관관계 및 건축물의 계획특성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년도	연구 내용	연구 성과
이정형 김진욱	2005	도시공간, 가로공간, 건축공간의 관점에서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리 및 정비방안을 위한 계획수립의 이론적 지점을 도출
김동진 김태연	2007	건축물 내, 외부공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근린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	가로와 연속성을 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의 필요성과, 유동적 흐름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가로와 건축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공간개념 제시
최이명 박소현	2007	필지 내 잔여공지와 가로의 접합관계에 대한 변화양상 및 그 특성에 대한 분석	미시적 스케일에서의 저층밀집주거지 내 가로환경의 유형적 특성에 대한 분석적 접근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서울 도심산업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인쇄산업지역의 가로변 건축물을 주요 분석요소로 하

며, 도심 인쇄산업지역 가로변 건축물과 가로공간의 관계특성을 파악하고, 연구대상지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축계획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복형 도심재생의 기초 자료 및 그에 따른 자생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I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구조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도심의 인쇄산업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대상지역의 인쇄산업의 분포특성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심산업지역으로서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가로공간과 가로변 건축물의 관계를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및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시 이를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였다.

1. 분석의 관점

1) 인쇄산업의 분포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쇄산업의 분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서울 중구지역의 4개의 도시블록을 선정하고, 블록내부의 도로와 도로 주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로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의 관점에서 가로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⁷⁾

분석대상으로는 블록내부의 도로와 건축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도시블록을 형성하는 간선도

7) 서울의 남촌지역은 일반적으로 청계천 이남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지역은 을지로, 퇴계로, 수표다리길, 삼풍상가, 진양상가로 경계 지어지며, 서울시가 2007년 6월 발표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대상지역의 일부로서 세운상가를 비롯한 노후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진행될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지이다.

로는 생활가로의 역할보다는 통과도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⁸⁾ 또한 연구 대상지의 도로⁹⁾ 중에서 현행건축법의 최소 도로 폭 규정을 적용 평균폭 4m를 확보하지 못한 도로를 제외하였다.¹⁰⁾

〈표 4〉 인쇄산업의 분포특성의 분석 관점

분석대상	인쇄산업지역의 도시 구조적 특성
도 로	· 도로의 물리적 특성 · 도로주변 건축물의 규모 및 분포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 각 도로별 인쇄업체의 분포

2)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도로는 필지와외의 관계에 의하여 그 형태가 결정되며, 도로와 필지의 형태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반면에 가로는 도로와 필지, 그리고 건축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가로의 형태는 건축물의 외관 및 주변의 건축적 상황의 연속적인 전개에 의하여 결정된다. 도로와 가로의 차이는, 도로가 대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에 의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가로는 건축물의 입지와 형태에 의하여 공간적 한계가 결정되고, 건축물의 사용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의 차이는 가로공간의 쓰임새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공적영역인 가로공간과 사적영역인 건축물 내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지표로서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을, 경사로, 계단, 데크, 그리고 직접연결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식에 따른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¹¹⁾(〈표 5〉 참조).

〈표 5〉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의 분석 관점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분석의 관점
경사로	· 가로공간의 활용방식 ·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 방식에 따른 가로공간의 활용도
계 단	· 가로공간과 건축물 내부의 연계성
데 크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관계성
직 접 연 결	· 도심산업 집적지역으로서의 가로공간의 특성

3)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

연구대상지역은 도심 인쇄산업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경우 인쇄산업에 맞는 계획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보다는 일반 임대용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업체들의 개별적 입지에 따라 선택적 요구에 의한 변형이 발견된다.¹²⁾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의 인쇄

8) 연구대상지역의 읍지로와 퇴계로 및 돈화문로와 같은 간선도로의 경우, 건축물이 가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대형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집적된 산업단지로서의 현황에 대한 분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9) 분석대상 도로의 현황은 국립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7년에 제작한 수치지도와 2007년 7월 서울시 중구청 발행의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10) 현행 건축법에서 도로는 폭 4m 이상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폭 4m 이하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정상적인 건축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11)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건축물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두 공간 사이의 연결방식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12) 연구대상지 건축물 중에는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건축물의 경우 현재의 법규가 규정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불법 증/개축의 흔적도 발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인쇄산업지역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산업시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도심 인쇄산업에서 요구되는 건축계획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지역이 소규모 생산업체들의 분업에 의하여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재료 및 생산품의 빈번한 이동에 의하여 나타나는 가로공간의 활용방식과 함께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접하는 건축물 외부의 건축요소를 중점으로 계획요소를 파악하였다.

분석대상으로서의 건축물 외부의 건축계획요소로는 캐노피, 적재함, 데크¹³⁾ 및 입간판과, 기타 가로변 구조물을 설정하여 가로공간의 활용방식과 건축계획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부 분석을 위하여 계획요소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특히 도로와 가로의 공간적 특성파악을 위하여 대지내부에 설치된 구조물과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여 시설된 구조물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4)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른 분석의 관점

가로공간은 건축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그 사용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도시의 실제적인 생활공간의 성격을 나타낸다. 특히 인쇄산업은 다양한 공정이 종합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며 그 공정의 성격에 따라 입지 및 시설 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¹⁴⁾ (<표 7> 참조).

<표 7> 인쇄산업의 세부공정과 공정의 성격

인쇄업의 세부공정	공정의 성격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자본의 창업이 용이하다. · 주문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함으로 수요자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 인쇄 및 제본업체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인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된 공정으로 대규모 시설을 요한다. · 재료와 완성물의 반입과 반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의 특성상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 설비투자비가 많다.
재료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보관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 다량의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표 6>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 분석의 관점

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요소	분석의 관점
캐노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요소의 필요성과 가로공간과의 관계 · 건축계획요소에 의한 가로공간의 점유방식 · 건축물 외부의 건축계획요소와 건축물 내부공간과의 관계
적재함	
데크	
입간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쇄산업의 각 공정을 담당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분업과 협업의 관계에 주목하여, 각 업체들 사이의 물류의 이동 및 가로변 건축물 입주업체의

분석에 있는 바, 이와 같은 불법/위법 건축물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분석의 결과는 앞으로의 건축물의 갱신 및 재건축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3) 건축물 외부의 건축계획요소로서의 데크는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 파악을 위한 연결 장치로서의 데크와는 구분되며, 건축물의 출입구 이외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4) 인쇄업의 지역적 집중은 각 업체들 사이의 생산체계의 파악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인쇄산업의 생산체계는 각각의 기업들이 각자 생산공정의 일부를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른 선택적인 관련업체와의 수평적인 생산관계의 종합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이 과정에서 수평적 분업 체계와 수직적 하청에 의한 분업의 체계가 나타난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특수한 공정이 필요한 경우나 물량이 과다하여 업체 내에서 모든 공정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분업적 생산체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가로공간의 사용방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인쇄산업의 공정에 따라 각각 기획, 인쇄, 제본, 그리고 재료판매의 4가지로 세분하여, 각 업체별 입지요소에 따른 분포특성,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의 3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행하였다¹⁵⁾(〈표 8〉 참조).

〈표 8〉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른 분석의 관점

인쇄업의 세부공정	분석의 관점
기획	· 수요자의 대면접촉을 위한 공간적 특성
인쇄	· 재료와 완성물의 반입과 반출을 위한 시설에 관한 특성
제본	· 작업공간의 확보를 위한 공간적 특성
재료판매	· 다량의 물품의 보관과 반입, 반출을 위한 공간적 특성



자료: <http://www.google.com>

〈그림 2〉 연구대상지역 항공사진

IV. 분석

1. 연구대상지역 개관

연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속하며, 을지로, 퇴계로, 수표다리길 및 삼풍상가와 진양상가를 경계로 하는 지역으로, 도심산업시설 특히 소규모 인쇄산업시설이 인현동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있다. 이 지역의 인쇄산업은 분업에 의한 생산방식을 주로 하고 있어 도시블록 전체가 인쇄촌으로서의 성격을 보인다.¹⁶⁾ 분석대상으로서의 도로의 총 연장길이는 3,879.17m이며, 총 513동의 건축물에 약 706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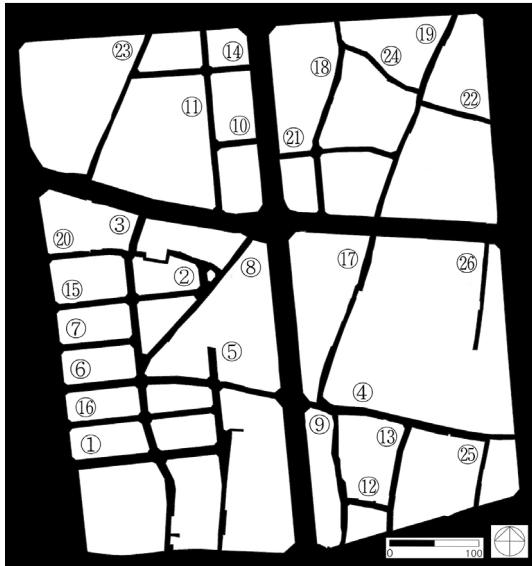
1) 연구대상지역 도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는 대지의 규모와 형태 및 도로의 규모에 영향을 받으며, 현행 건축법에서도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지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전면도로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이나 지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가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는 건축물과 대지와의 관계 그리고 건축물과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5) 인쇄업의 세부업종 구분은 이외에도 라벨 인쇄, 스크린 인쇄, 도무송, 라미네이팅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공정의 특성상 건축물 외부의 가로공간과의 관계보다는 건축물 내부 작업공정과 내부공간구조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라고 판단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6) 이 지역 대부분의 물류이동은 차량보다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물류의 이동이 소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도로의 협소함에 의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17)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2004년과 2007년 서울시 중구청 발행의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2007년 7월과 10월, 총 5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행태와 가로공간과의 직접적인 관계 파악을 위하여 1층에 입주한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국립국토지리정보원(1997), 서울특별시 중구청(2007b).

〈그림 3〉 연구대상지 평균폭 4m 이상 도로

간선도로를 제외한 연구대상지역의 도로 중에서 평균 폭 4m 이상의 도로는 26개로 구분되며, 총 연장길이 3,879.17m에 달한다. 가장 넓은 도로는 수표다리2길로, 9.90m의 평균 도로폭을 갖는다(〈그림 3〉 참조). 조사대상 가로변 건축물은 평균 368.85m²의 연면적과 평균 2.89층의 규모이며, 일반적으로 폭이 넓은 도로주변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⁸⁾(〈표 9〉 참조).

2) 연구대상지역 건축물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 인쇄산업의 분포 특성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조사대상 가로 주변의 총 513동 건축물의 1층에 입주한 706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용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축

〈표 9〉 연구대상지역 도로와 건축물 현황

구분	도로			건축물	
	도로명	평균폭 (m)	길이 (m)	평균 연면적	평균 층수
1	수표다리2길	9.90	151.80	636.57	3.62
2	초동1길	8.15	33.26	800.69	4.00
3	은막길	7.92	363.38	533.95	3.24
4	충무4가길	7.62	215.45	230.38	2.50
5	충무3가1길	7.29	217.92	475.53	3.65
6	충무3가길	7.18	214.96	275.48	3.09
7	수표다리5길	6.55	75.87	344.79	2.86
8	초동길	6.27	177.40	275.86	3.17
9	충무4가1길	6.24	143.12	359.48	2.23
10	초물전1길	6.24	45.12	480.43	4.00
11	초물전길	6.19	187.62	1,442.75	5.43
12	충무4가2길	6.18	49.47	145.46	2.00
13	충무4가2길	6.16	117.89	242.75	2.29
14	초물전길	6.13	123.36	363.49	3.43
15	수표다리6길	5.99	153.71	378.83	3.19
16	수표다리4길	5.96	151.00	266.08	2.44
17	건천동길	5.90	190.04	290.54	2.56
18	연꽃길	5.89	204.94	445.87	3.57
19	인현길	5.58	228.00	259.76	2.29
20	수표다리7길	5.55	191.35	187.37	2.58
21	연꽃3길	5.27	122.16	214.62	2.25
22	인현1길	5.08	76.15	326.96	2.45
23	소망길	5.02	160.19	364.09	2.83
24	연꽃1길	5.02	97.65	397.37	3.30
25	충무4가길	4.39	71.86	890.15	2.50
26	인현시장길	4.03	115.47	80.82	1.25
계	-	6.22	3,879.17	368.85	2.89

자료: 국립국토지리정보원(1997), 서울특별시 중구청(2004, 2007a, 2007b).

물의 용도분포에 의한 도시 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¹⁹⁾(〈표 10〉 참조).

18)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에서 초물전길 주변의 건축물이 평균연면적이 1,442.75m², 평균층수가 5.43층으로 나타나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초물전길 주변이 격자형 가로체계로 인하여 필지의 규모와 형태가 정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 규모가 큰 건축물의 입지가 유리한 조건을 갖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직접적으로 가로공간을 사용하는 현황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조사대상 건축물 1층에 입주한 업체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제로

〈표 10〉 연구대상지역 도로별 건축물 용도 구분

구분	도로명	인쇄산업시설		기타		계
		업체수	비율 (%)	업체수	비율 (%)	
1	수표다리2길	-	-	20	100.00	20
2	초동1길	2	100.00	-	-	2
3	은막길	10	20.83	38	79.17	48
4	충무4가길	25	36.76	43	63.24	68
5	충무3가1길	8	33.33	16	66.67	24
6	충무3가길	12	30.77	27	69.23	39
7	수표다리5길	10	90.91	1	9.09	11
8	초동길	3	7.89	35	92.11	38
9	충무4가1길	11	57.89	8	42.11	19
10	초물전1길	2	28.57	5	71.43	7
11	초물전길	8	33.33	16	66.67	24
12	충무4가2길	1	100.00	-	-	1
13	충무4가2길	12	92.31	1	7.69	13
14	초물전길	11	73.33	4	26.67	15
15	수표다리6길	16	100.00	-	-	16
16	수표다리4길	7	38.89	11	61.11	18
17	건천동길	56	90.32	6	9.68	62
18	연꽃길	38	84.44	7	15.56	45
19	인현길	59	86.76	9	13.24	68
20	수표다리7길	8	61.54	5	38.46	13
21	연꽃3길	26	96.30	1	3.70	27
22	인현1길	17	80.95	4	19.05	21
23	소망길	19	61.29	12	38.71	31
24	연꽃1길	19	90.48	2	9.52	21
25	충무4가길	5	62.50	3	37.50	8
26	인현시장길	3	6.38	44	93.62	47
계	-	388	54.96	318	45.04	706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각 도로별 입주업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분포특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심 인쇄산업시설의 구조적 질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²⁰⁾ 조사된 706개의 입주업체 중 54.96%에 달하는 388개의 업체가 인쇄업 및 그 관련시설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건천동길, 연꽃길, 인현길의 경우, 입주한 인쇄산업시설의 비율이 90%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어 가로공간 전체를 인쇄 관련업체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¹⁾

이처럼 특정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산업의 집중현상은 각 업체들의 개별적인 선택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로, 연구대상지역은 동종업체의 집중에 의한 독특한 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도시 기능적 측면에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2.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는 두 공간 사이의 동선과 연결방식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데, 현장조사 결과,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이 레벨의 차이가 전혀 없거나 1단 이하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237개소), 2단 이상의 계단으로 연결되는 경우(118개소), 경사로에 의하여 연결되는 경우(31개소), 일정높이 이상의 테크가 설치된 경우(20개소)로 구분 조사되었다²²⁾(〈표 11〉 참조).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레벨차이 없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전체의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현장 조사를 통한 입주업체의 현황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구분에 있어 대부분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이 지역 건축물의 다수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계획되었다기보다는 임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결과로 판단되며, 그 결과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 조사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 이 지역에 집중된 인쇄산업시설의 입지는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나는데, 인쇄산업시설 이외의 건축물 용도의 특징적인 분포로는 초동길을 따라 밀집된 식당의 분포와 인현시장길을 중심으로 분포된 판매시설의 집중을 들 수 있다.

21) 연구대상지역의 도로별 건축물 용도 분석에 의하면, 이외에도 인쇄산업시설의 입주가 90%이상으로 나타나는 도로가 총 6개(초동1길, 수표다리5길, 충무4가2길, 수표다리6길, 연꽃3길, 연꽃1길)였으나, 이 길들 주변 건축물의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꽃1길과 연꽃3길의 경우, 연꽃길과 인현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이 길들을 중심으로 도심 인쇄산업단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0〉 참조).

22) 경우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연결 관계가 나타나는 곳도 파악되었으며, 이와 같은 복수의 연결 관계 역시 분석에 포함하였다.

61.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사적공간인 건축물의 내부 공간이 매우 개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업체의 경우, 가로공간과 건축물 내부공간의 연결이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이 경사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31개 경우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70%정도의 업체가 가로공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분석요소 연결방식	경사로 A	계단 B	데크 C	직접연결 D	업체수 (%)
A+B+C+D	-	-	-	-	-
A+B+C	-	-	-	-	-
A+B+D	-	-	-	-	-
A+B	4	4	-	-	4(1.03)
A+C	1	-	1	-	1(0.26)
A+D	1	-	-	1	1(0.26)
A	25	-	-	-	25(6.44)
B+C+D	-	-	-	-	-
B+C	-	9	9	-	9(2.32)
B+D	-	2	-	2	2(0.52)
B	-	103	-	-	103(26.55)
C+D	-	-	1	1	1(0.26)
C	-	-	9	-	9(2.32)
D	-	-	-	233	233(60.05)
계(%)	31(7.99)	118(30.41)	20(5.15)	237(61.08)	388(100.00)

한편, 20개 업체의 경우 가로공간과 건축물 사이에 데크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로공간과 건축물 사이에 설치된 데크는 물리적인 형태로만 보면 건축물의 내 / 외부 공간의 연결을 단절하는 구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된 데크의 대부분이 조업 및 제품적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로 원활한 조업을 위한 보조 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로공간에 설치된 데크 역시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내부공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따라서 연구대상지역 인쇄산업시설의 가로공간은 건축물 내부와의 긴밀한 연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장된 내부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

대지내부를 포함한 가로공간에 설치되거나 건축물에 부착된 구조물을 조사한 결과, 캐노피(239개소), 적재함(145개소), 데크(24개소), 입간판(56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2~13〉 참조).



〈그림 4〉 인쇄관련시설의 가로공간 사용방식

23) 데크가 설치된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데크로 인한 동선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사로, 계단 및 직접연결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데크가 두 공간사이의 단절을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대지내부)

분석요소 구분	캐노피		적재함		데크	
	고정식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업체수(%)	59 (15.21)	168 (43.30)	29 (7.47)	116 (29.90)	22 (5.67)	2 (0.52)
계(%)	227(58.51)		145(37.37)		24(6.19)	

〈표 13〉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대지외부)

분석요소 구분	캐노피		입간판	
	고정식	이동식	고정식	이동식
업체수(%)	2(0.52)	10(2.58)	1(0.26)	55(14.18)
계(%)	12(3.09)		56(14.43)	

1) 캐노피

인쇄업은 그 재료로서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 외부의 환경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60%이상의 업체들이 건축물에 이동식 혹은 고정식 캐노피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비와 직사광선

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제품의 반입과 반출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전면부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캐노피가 대지경계선을 넘어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12개소), 이는 일부 업체에서 도로를 단순히 통행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부의 조업공간을 가로공간으로까지 확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2) 적재함

건축물 전면부의 가로공간에 설치된 적재함은 고정식으로 설치된 것보다 이동식으로 설치된 것의 수가 약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적재함의 용도가 물품의 장기보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시보관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대상지역의 인쇄산업이 분업에



〈그림 5〉 인쇄관련시설의 전면도로 캐노피



〈그림 6〉 인쇄관련시설의 가로공간 적재함

24) 건축물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고정식 구조물의 설치하는 현행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지경계선을 넘어가는 공작물의 설치 역시 현행 건축법에서는 규제대상이 된다.

의한 전문공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의 반입과 반출이 용이한 건물 전면의 가로공간을 적재의 장소로 선택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쇄산업의 주재료 및 완제품이 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제품을 건물 외부에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외부에 다수의 적재함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건축물 내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각각의 업체들에 의하여 가로공간이 조업공간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3) 데크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대지내부에 데크를 설치한 경우가 24개소로 나타났는데, 데크의 경우 적재함과는 달리 2개의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적재함과는 달리 데크의 용도가 고정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입간판

조사대상 중 56개의 업체가 대지외부에 홍보용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구조물이 인쇄완성품을 전시하거나 기획, 제작된 소품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직접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이었다.²⁵⁾ 이들 시설물은 고정식으로 설치되기보다는 이동식으로 제작 설치되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구조물이 도로를 점유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4.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른 분석

이 지역의 인쇄산업시설은 비교적 소규모의 업체들로서 각 인쇄공정에 따른 전문적인 업무를 담



〈그림 7〉 인쇄관련시설의 데크



〈그림 8〉 인쇄관련시설의 가로공간 입간판

25) 가로변에 설치된 입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간판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인쇄업의 생산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조물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히 업체의 이름을 게시한 입간판의 경우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당한다. 인쇄공정에 따른 업체의 성격을 보면, 기획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업체와, 인쇄와 제본을 담당하는 업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외에 잉크 및 종이와 같은 인쇄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결과, 기획 및 디자인 146개 업체, 인쇄 220개 업체, 제본 34개 업체, 그리고 42개의 업체가 인쇄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한편, 기획과 인쇄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체가 33개, 기획과 인쇄 및 제본의 전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도 3개로 조사되었다.

〈표 14〉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른 용도구분

세부공정 구분	기획 A	인쇄 B	제본 C	재료판매 D	총업체수 (%)
A+B+C+D	-	-	-	-	-
A+B+C	3	3	3	-	3(0.77)
A+B+D	-	-	-	-	-
A+B	33	33	-	-	33(8.51)
A+C	-	-	-	-	-
A+D	-	-	-	-	-
A	110	-	-	-	110(28.35)
B+C+D	-	-	-	-	-
B+C	-	12	12	-	12(3.09)
B+D	-	3	-	3	3(0.77)
B	-	169	-	-	169(43.56)
C+D	-	-	-	-	-
C	-	-	19	-	19(4.90)
D	-	-	-	39	39(10.45)
계(%)	146(37.63)	220(56.70)	34(8.76)	42(10.82)	388(100.00)

1) 인쇄산업 세부공정의 분포특성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른 업체의 분포를 각 도로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획 및 디자인

업체의 경우 9개의 도로에서 평균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표 15〉 참조).

〈표 15〉 인쇄산업 세부공정의 분포

구분	도로명	기획	인쇄	제본	재료 판매	총 업체 수
		업체수 (%)	업체수 (%)	업체수 (%)	업체수 (%)	
1	수표다리2길	-	-	-	-	-
2	초동1길	-	2(100.00)	-	-	2
3	은막길	2(20.00)	9(90.00)	-	-	10
4	충무4가길	12(48.00)	15(60.00)	-	-	25
5	충무3가1길	4(50.00)	6(75.00)	1(12.50)	2(25.00)	8
6	충무3가길	5(41.67)	8(66.67)	2(16.67)	3(25.00)	12
7	수표다리5길	-	10(100.00)	-	-	10
8	초동길	2(66.67)	3(100.00)	1(33.33)	-	3
9	충무4가1길	1(9.09)	10(90.91)	3(27.27)	-	11
10	초물전1길	1(50.00)	1(50.00)	-	-	2
11	초물전길	3(37.50)	7(87.50)	1(12.50)	1(12.50)	8
12	충무4가2길	-	1(100.00)	-	-	1
13	충무4가2길	-	7(58.33)	4(33.33)	1(8.33)	12
14	초물전길	10(90.91)	3(27.27)	2(18.18)	-	11
15	수표다리6길	1(6.25)	13(81.25)	-	2(12.50)	16
16	수표다리4길	1(14.29)	6(85.71)	1(14.29)	-	7
17	건천동길	15(26.79)	40(71.43)	5(8.93)	9(16.07)	56
18	연꽃길	18(47.37)	11(28.95)	4(10.53)	6(15.79)	38
19	인현길	45(76.27)	7(11.86)	-	11(18.64)	59
20	수표다리7길	1(12.50)	5(62.50)	2(25.00)	-	8
21	연꽃3길	9(34.62)	12(46.15)	2(7.69)	3(11.54)	26
22	인현1길	3(17.65)	10(58.82)	3(17.65)	2(11.76)	17
23	소망길	5(26.32)	12(63.16)	3(15.79)	2(10.53)	19
24	연꽃1길	5(26.32)	17(89.47)	-	-	19
25	충무4가길	2(40.00)	3(60.00)	-	-	5
26	인현시장길	1(33.33)	2(66.67)	-	-	3
계	-	146(37.63)	220(56.70)	34(8.76)	42(10.82)	388

26) 인쇄재료를 판매하는 업체는 종이와 잉크를 비롯하여 예폭시, 아크릴 및 금박 등과 같은 특수재료를 취급하는 업체들로서, 대부분 특화된 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산업특성을 갖는다.

27) 충무4가길, 충무3가1길, 충무3가길, 초동길, 초물전1길, 초물전길, 연꽃길, 인현길, 충무4가길

이 9개의 도로 중에서 표본의 수가 10개 이하인 5개의 도로²⁸⁾를 제외한 4개의 도로²⁹⁾가 도시블록을 관통하는 도로이며,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기획 및 디자인 업체의 경우, 실수요자와의 많은 접촉을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의 입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쇄를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업체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에서 높은 입지분포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특이하게도 총 업체의 수가 가장 많은 도로³⁰⁾에서 분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업체의 수가 많은 도로일수록 인쇄공정을 담당하는 업체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¹⁾ 제본을 담당하는 업체와 인쇄재료를 판매하는 업체는 연구대상지역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었는데, 인쇄재료를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총 업체의 수가 많은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수요가 많은 곳을 선호하는 입지특성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라 각 업체의 분포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연구대상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인쇄산업의 구조적 질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도시의 기능적 구조체계는 이 지역의 자생적 도심재생을 위한 주요 기반요소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을 기준으로 한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

인쇄산업의 세부공정 중 기획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도로와 직접 만나거

나 계단을 이용하여 연결되고 있었으며, 특히 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다른 업종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세부공정별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			연결방식			
세부공정			경사로	계단	데크	직접
기획	업체수	146	4	54	4	88
	%	100.00	2.74	36.99	2.74	60.27
인쇄	업체수	220	19	64	15	137
	%	100.00	8.64	29.09	6.82	62.27
제본	업체수	34	4	5	1	24
	%	100.00	11.76	14.71	2.94	70.59
재료 판매	업체수	42	6	11	3	23
	%	100.00	14.29	26.19	7.14	54.76
계	업체수	388	32	118	20	237
	%	100.00	8.25	30.41	5.15	61.08

이는 물류의 이동보다는 직접 실수요자와의 대면 접촉이 중요한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로공간과 건축물이 직접 연결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공정은 제본을 담당하는 업체로 나타났으며, 계단보다는 경사로에 의한 연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사로의 사용은 재료판매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물품의 이동이 중요한 공정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3)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을 기준으로 한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

가로공간의 건축계획요소를 인쇄업의 세부공정

28) 충무3가길, 초동길, 초물전길, 초물전길, 충무4가길

29) 충무4가길, 충무3가길, 연꽃길, 인현길,

30) 인현길

31) 연구대상지역에서 인쇄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는 직접 실수요자를 상대하기보다는 주문, 하청에 의한 생산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위하여 주목할 만한 입지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비교적 위계가 낮은 도로의 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기획 및 디자인 업체의 경우 건축물 외부에 입간판이 설치된 업체가 전체의 32.19%로 나타나 다른 공정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는데, 이 역시 업체의 실수요자들과의 대면접촉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17〉 참조).

제본과 인쇄재료를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90% 이상의 업체가 대지 내/외부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 업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로서, 빈번한 물품의 반입과 반출의 필요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인쇄재료 판매업체의 경우, 90% 이상이 대지내부에 적재함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고정식 적재함을 설치한 업체도 23.81%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 외부의 가로공간을 임시적 조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 조업공간의 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테크의 경우, 각 세부공정에 따른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른 계획요소에 비하여 고정식 구조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른 건축물 외부의 구

조물의 설치와 활용에 있어서 각 업종별로 선호하는 구조물과 설치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가로공간을 실내공간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조업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공간 부족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원활한 분업과 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대상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인쇄산업의 생산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역의 도심 인쇄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건축물을 위한 건축계획 기준의 제시와 함께 가로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가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도심 인쇄산업지역의 건축계획요소의 평가

연구대상지역의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들의 입지 및 가로공간과 건축물 외부의 구조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공정과 계획요소의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표 17〉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을 기준으로 한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





대지와외의 관계			대지내부의 설치물									대지외부의 설치물					
분석요소			캐노피			적재함			테크			캐노피			입간판		
구분			고정	이동	소계	고정	이동	소계	고정	이동	소계	고정	이동	소계	고정	이동	소계
기획	업체수	146	19	29	48	6	35	41	5	-	5	-	-	-	1	46	47
	비율	100.00	13.01	19.86	32.88	4.11	23.97	28.08	3.42	-	3.42	-	-	-	0.68	31.51	32.19
인쇄	업체수	220	40	107	147	16	49	65	14	2	16	1	4	5	-	17	17
	비율	100.00	18.18	48.64	66.82	7.27	22.27	29.55	6.36	0.91	7.27	0.45	1.82	2.27	-	7.73	7.73
제본	업체수	34	11	19	30	3	12	15	3	-	3	-	3	3	-	1	1
	비율	100.00	32.35	55.88	88.24	8.82	35.29	44.12	8.82	-	8.82	-	8.82	8.82	-	2.94	2.94
재료 판매	업체수	42	2	32	34	10	29	39	5	-	5	1	4	5	-	1	1
	비율	100.00	4.76	76.19	80.95	23.81	69.05	92.86	11.90	-	11.90	2.38	9.52	11.90	-	2.38	2.38
계	업체수	388	59	168	227	29	116	145	22	2	24	2	10	12	1	55	56
	비율	100.00	15.21	43.30	58.51	7.47	29.90	37.37	5.67	0.52	6.19	0.52	2.58	3.09	0.26	14.18	14.43





세부공정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기획 및 디자인 업체의 경우 직접 실수요자를 대면할 수 있는 입지와 제품의 홍보를 위한 구조물의 설치가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로 평가되어, 접근성과 대면성이 주요한 계획요소로 나타났다. 인쇄를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가로공간과의 긴밀한 연결이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로 평가되었고,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재료와 인쇄 완성품을 보호하기 위한 캐노피와, 조업을 위한 데크의 필요성이 주요한 계획요소로 나타났다. 제본을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물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재료를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임시적인 물품의 보관과 이동을 위한 시설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18〉 참조).

한편 계획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공정에서 가로공간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 재료 및 완제품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제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³²⁾ 그러나 현재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각 업체별로 개별적, 제한적으로 계획되고 있어 가로공간의 긍정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도심 인쇄산업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주요한 계획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건축물 외부의 조업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원활한 물류의 움직임을 위한 적절한 규모와 형태의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표 18〉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을 기준으로 한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 평가

계획요소의 평가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경사로	계단	데크	직접연결
세부공정				
기획	×	○	×	○
인쇄	○	○	○	◎
제본	◎	×	×	◎
재료판매	◎	○	○	○

계획요소의 평가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			
	캐노피	적재함	데크	입간판
세부공정				
기획	×	×	×	◎
인쇄	○	×	○	×
제본	◎	○	○	×
재료판매	◎	◎	◎	×

중요함: ◎ 보통: ○ 중요하지 않음: ×

32)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가로공간에서의 조업이 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부 환경으로부터 재료와 인쇄 완성품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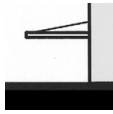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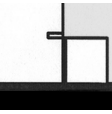
건축물 외부의 조업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전면 도로에 면한 공지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계획방법인데, 이는 필지와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대상지역과 같이 필지와 건축물의 규모가 협소한 지역에서는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방법이다.³³⁾ 따라서 건축물의 1층 부분을 필로티로 처리하는 갱신을 통하여 전면도로에 면한 공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원활한 물류의 움직임을 위한 적절한 외부공간을 확보를 위해서는 물품 이동수단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로공간의 균질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도로의 폭원이나 필지와 건축물의 규모에 의하여 가로공간의 형태와 규모가 결정되기보다는, 적정 가로공간의 확보가 우선되는 건축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건물 전면의 조업공간은 작업의 편이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연면적의 확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필지의 크기가 충분한 경우, 대부분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³⁴⁾ 그러나 건물 전면의 공지는 개인소유의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로와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공지에 대한 성격규정이 필요하며, 가로공간의 용도 제한이나 규모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재료와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1층 부분을 필로티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현재 연구대상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부가 설치된 캐노피는 효율성과 가로공간의 균질성이라는 측면에서 필로티에 의한 계획보다 불리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표 19〉 참조).

〈표 19〉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보호시설의 비교

	캐노피	필로티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시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적 구조물로 효율성이 떨어짐 · 비 균질한 가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가로공간의 활용 가능 · 균질한 가로공간

연구대상지역은 같은 업종의 집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업종이 지배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도시 구조적 측면에서의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집적의 현상은 이 지역에 내재된 미래 도시발전의 잠재력에 의한 것으로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도심부에 적응하고 발전하여온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역의 인쇄 산업시설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용도에 따른 현재의 적응방식 및 건축계획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기준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33) 연구대상지역의 도로와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대상지역 건축물의 평균연면적은 368.85m²이고 평균 층수는 2.89층으로 그 규모가 도심의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34) 도로와 접한 대지안의 공지확보는 현재 전면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도로사선제한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되는 법규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높이 증가는 궁극적으로 건축 연면적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건축주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기법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건축물 규모에 대한 규제가 건축지정선과 같은 가로공간 중심의 건축기준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수복형 도심재생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도심산업시설로서의 인쇄관련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와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도심산업시설의 기능적, 구조적 질서를 밝혀내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심재생과 자생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서울시 중구지역에 집중된 인쇄산업은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으로서, 도시 기능의 유지와 도심산업의 부가 가치 증대를 위해서도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대상지의 경우 인쇄업이라는 특정 시설의 집중에 의한 도심산업단지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집단적인 개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업체들의 개별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종합적인 시설기준이나 계획기준은 갖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심 인쇄산업지역이 필요로 하는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기능적 요구를 밝혀내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도심산업지역으로서의 도시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가로공간과 가로변 건축물의 관계를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연결방식 및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다시 이를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연구대상지역의 가로변 건축물에 입주한 업체의 약 55%가 인쇄산업시설로 파악되었다. 한편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라 기획, 인쇄, 제

본, 재료판매의 네 가지 용도로 구분, 분석한 결과, 각 도로별로 특징적인 분포특성을 보이고 있어,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특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획을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실수요자와의 직접 대면의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인쇄를 담당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본과 재료판매를 담당하는 업체는 공정의 특성이 다른 인쇄관련시설과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인쇄산업의 세부공정에 따라 각 업체의 입지가 특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이 지역에 내재된 집단생산구조의 질서 표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내재된 구조적 질서는 앞으로 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관계는 공적영역으로서의 가로공간과 사적영역인 건축물의 내부가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 관계를 맺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두 공간의 연결방식에 대한 분석은 가로공간과 건축물의 물리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의한 가로공간의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로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지역의 인쇄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가로와의 밀접한 연결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적공간인 건축물의 내부공간이 매우 개방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획을 담당하는 업체는 실수요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하여, 그리고 제본과 재료판매를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건축물 내부공간과 가로공간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계획요소에 대한 분

석결과는 각 업체별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계획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계획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특히 연구대상 지역의 건축물이 인쇄산업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임대 목적의 건축물인 점과, 설치된 구조물의 대부분이 입주한 업체들의 개별적 필요성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도심 인쇄산업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계획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획을 담당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한 구조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본과 재료판매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다른 공정에 비하여 캐노피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또한 제품의 보관을 위한 적재함과 작업을 위한 데크의 필요성도 다른 공정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외부환경에 민감한 종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인쇄산업의 특성상, 제품을 외부환경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처럼 건축물 외부의 구조물의 설치와 활용에 있어 각 공정별로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와 용도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모든 공정에서 공통적으로 가로공간을 실내공간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활한 분업과 협업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도심 인쇄산업지역의 계획요소를 종합하면, 첫째, 건축물 외부의 조업공간의 확보를 통한 가로공간과 건축물 내부의 유기적 연결이 필요하며, 둘째, 확보된 건축물 외부의 공간은 원활한 물류의 움직임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와 형태를 가져야 하며, 셋째, 외부 환경으로부터 재료와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 및 건축계획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에서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도심산업시설의 현재의 대응방식에 대한 분석 및 도심 인쇄산업시설의 계획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제까지의 전면재개발에 의한 도심재생이 아닌 수복형 도심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종별 계획기준의 설정과, 시설의 적정 규모 및 계획요소의 구체적인 물리적 기준에 대한 것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연구대상지역의 도심인쇄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시설의 적정 규모 및 설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추후의 연구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토지리정보원, 1997, 「수치지도」
- 김기호, 2003, “남촌: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과 도시구조의 변화”, 『서울남촌: 시간, 장소, 사람』: 1~35, 서울학연구소.
- 김동진·김태연, 2007, “가로변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의 공간구성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 23(6): 79~87.
- 김란주, 1994, “소규모 인쇄업체의 지리적 집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 1995, 「서울600년사 3~4」.
- 서울특별시 중구청, 2004, 「건축물대장」.
- 서울특별시 중구청, 2007a, 「건축물대장」.
- 서울특별시 중구청, 2007b, 「토지대장」.
- 양승우, 2003, “남촌의 필지조직의 특성과 변화”, 『서울남촌: 시간, 장소, 사람』: 36~71, 서울학연구소.
- 오경숙, 1987, “우리나라 인쇄업의 지역구조와 그 입지변동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용기, 200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문당.

이정형, 2002, 「도시의 경관계획」, 세진사.

이정형·김진욱, 2005, “가로블록 구성방식에 따른 가로공간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8): 177~186.

최이명·박소현, 2007, “주택가 필지 내 잔여공지와 가로와의 관계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7): 145~152.

최동혁, 2005, “서울 남촌지역 가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 고 접 수 일 : 2007년 10월 31일

1차심사완료일 : 2007년 12월 20일

2차심사완료일 : 2008년 1월 10일

최종원고채택일 : 2008년 1월 16일